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t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쏘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야 50,4-7

[화답송] 시편 22(21),8-9.17-18.19-20.23-24(◎ 2가)



(후렴)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 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제 2 독서] 필리피 2,6-11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필리 2,8-9 참조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루카 수난기 22,14-23,56

[성가안내]

- 입당성가 [10] 주를 찬미해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 성체성가 [149] 사랑의 성사
- 파견성가 [115] 수난 기약 다다르니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전마지 마가렛 이영우, 이태묘 최순자 막달레나 김정숙 김정숙 김용기 요셉 김미화 글라라 이정진 안토니오 유금동 이옥녀 허덕연 에리자벳 민병택 베드로 유바로 이안나부부, 막달라 마리아, 흥데레사	가족 이상홍 스테파노 장수림 에피파니아 가족 요셉회 요셉회 문종간 글라라 이영애 레지나 유미경 크리스티나 유경자 데레사 임영애 스텔라 이은경 헬렌 김경련 울리다
생미사	봉헌
김영희 (갑사) 지군자 스테파니	김영희 익명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4월10일	이영노 울리안나	김진섭 야고보	김승연 안나	김승연 안나	김영숙 카타리나	정동주유스토, 조소연 데레사, 한서희 데레사,	마르티나, 김유화 정은철 프란치스코
4월17일	백이백 아오스딩	박기목 알버트	이경자 울리안나	이경자 울리안나	안선정 마리안나	정동주유스토, 조소연 데레사, 한서희 데레사,	마르티나, 김유화 정은철 프란치스코

- **청년 미사 5월 14일(토) 부터 시작합니다.**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시 아랫성당
 - 청년 전례부 모임: 오후 4시 30분 아랫성당
- **청년 전례부원 모집**
 - 문의 : 정동주 유스토 부장 917-750-6432
 - 김승현 마리아부부장, 김진수 대건안드레아 부부장, 신부님
- **봄학기 청년 성서모임 개강안내 'Zoom Meeting'**
 - 대상: 세례 받은 청년
 - 신청마감: 4월 17일
 - 첫모임: 5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 (줌링크 추후공지)
 - 모집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 문의: 대표봉사자 김진섭 야고보 201-912-7577
- **청년 레지오 'Zoom'**
 - 매주 목요일 밤 9시
 - Meeting ID : 873 6206 6000 Passcode : 368464
- **<성삼일 전례안내>**
 - 4월 14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저녁 8시
 - 4월 15일 성금요일 십자가의길 저녁7시, 주님수난예식 8시
 - 4월 16일 파스카 성야미사 저녁 10시
 - 4월 17일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오전 9시 15분
- **25주년 기념 '사랑의 나눔 바자회'**
 - 일정: 6월 5일
 - 각 단체들과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뉴욕 대교구 분담금 자유로이 봉헌해주시길바랍니다.**
 - 2022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분담금입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2022년 4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보건 의료 종사자들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픈 이들과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오전 8:30 ~ 8:50 2층 사무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A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2층 컨퍼런스룸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8:30am~13:3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4:30pm	아랫성당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주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INE & LIQUOR
WEST 8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정주 (소화데레사)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박명순 (모니카) | |
| 이경희 (미카엘라) | |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수난기 22,14-23,56)

성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전례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기념식과 주님 수난 성지주일 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례력 '다'해인 올해는 루카 복음을 읽으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수난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수난기(22,14-23,56)'입니다. 루카는 그의 복음의 시작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루카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행차로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겹옷을 깔았다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이것은 2열왕기 9,13에서 예언자가 '예후'를 기름 부어 임금으로 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군대의 장수가 그의 발 밑 층계에 자기 겹옷을 깔고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고 환호했던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주님의 행차를 향한 사람들의 환호성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이 환호성은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 때 마리아께 했던 말과 목자들에게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외친 환호를 생각나게 합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세너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예후'같은 부류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에게서는 정치적 야망이나 전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카는 다른 복음과 달리 주님께서 행차하시는 길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장면을 생략했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 이사야서는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이야기입니다. 겸손한, 그러나 확고한 믿음을 가진 수난 받는 종의 이야기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루카 복음의 겸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늘의 제2독서 필리피서는 '일치와 겸손'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여 하느님께서 들어 올리신 예수님의 겸손을 찬미했습니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예수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휘했던 백인대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탄복하게 만드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파스카 신비를 묵상하는 성주간 동안 이 예수님을 뒤따라 가며 우리는 죽고 부활하여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